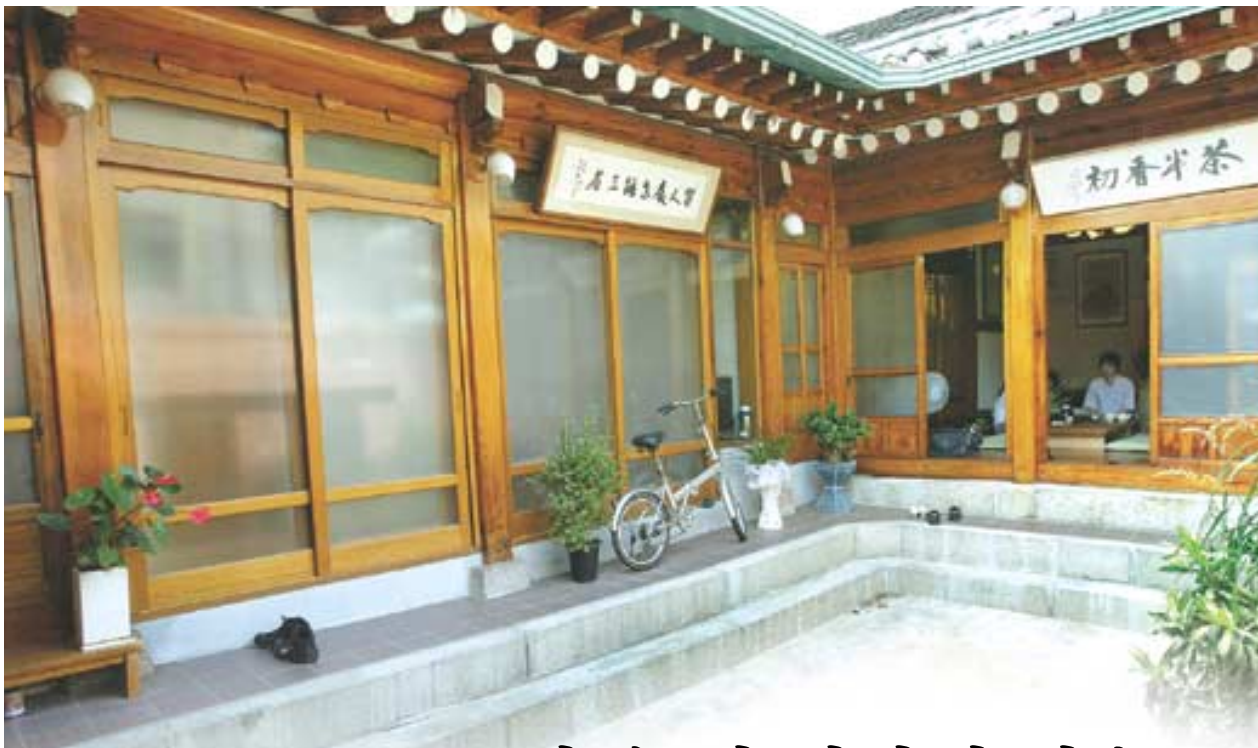




## '전통찻집'에서 '산사의 차'를 만나자

서울 조계사에서 모처럼 오랜 친구를 만난 L씨.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근처 '전통찻집'을 찾았지만 잡념새가 잔뜩 번 녹차와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질려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산사의 고즈넉함과 향긋한 차 한 잔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서울 인사동과 가회동 일대에 숨겨진 보물 창고 같은 차실을 찾아가 보자. 차로 유명한 스님들이 직접 만든 차를 마시며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차실 네 곳을 소개한다.



지난 4월 문을 연 서울 가회동 '강마다 뜨는 달'.

## 도심 속 차 한잔의 여유

4월 문을 연 서울 가회동의 '강마다 뜨는 달'은 지허 스님(문운사 주지)의 차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찻집이다. 2004년까지 순천 선암사에 머물며 우리 전통차를 연구해 온 지허 스님이 금문사로 자리를 옮긴 후 만들고 있는 '천강월 잎차'를 선보인다.

가회동 헌법재판소를 지나 100m쯤 지난 골목길에서 '강마다 뜨는 달'이란 간판이 붙어 있는 자그마한 한옥을 볼 수 있다. 나무문을 밀고 들어가면 마당에 핀 꽃들과 조용한 차실이 반긴다. 주말이면 지허 스님의 차를 아끼는 사람들의 모임인 '차사모' 회원들이나 사찰 청년회 회원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잡담을 한다. 인사동이나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도 편안한 분위기에 끌려 들어와 차를 마시기도 한다.

'강마다 뜨는 달'을 운영하고 있는 정현석(33)씨는 "우리 전통차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차실을 열게 됐다"며 "언제든 찾아와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허 스님이 직접 만든 녹차와 생강차, 모과차 등이 준비되어 있다. (02)742-3337

## 지허·여연·용운 스님 등이 직접 만든 차 즐겨

조계사 근처 수송동의 두산위브 파빌리온 2층에 문을 연 초의차명상원(원장 지장)은 해남 일지암 주지 여연 스님의 '반야차'를 만날 수 있는 곳. 여연 스님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초의차명상원은 차명상 대중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30여 평 규모의 명상원은 점심 시간이나 강의가 없는 시간에 찾아가면 한적하게 차를 마실 수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차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해 볼 수도 있다.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불교관련 단체 활동가들도 자주 찾고 모처럼 서울을 찾은 스님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유명하다.

지장 스님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명상에 잠겨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02)733-7209

용운 스님의 제법으로 다양한 국산 차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 지리산 명차원은 서울 인사동에 '명차원'을 마련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사동에 들

렀다가 차 한 잔 마시러 찾는 사랑방같은 공간이다. 용운 스님이 제다한 녹차는 물론 발효차인 고월명차와 금황녹차, 유자 녹차와 월계수녹차 등 다양한 차를 맛볼 수 있다. 용운 스님의 강의 녹음테이프와 저서도 판매한다. (02)722-1060

인사동 초입 관훈동에 자리잡은 불교전문화원은 전남 보성에서 반야다원을 일구고 있는 선혜 스님이 운영하는 차실. 87년 문을 연 이후 20여 년 간 석정원 차회 차인들을 길러낸 산실이자 다양한 차문화 강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길을 지나 다 우리 장식장에 가지런히 진열된 다구들이 신기해 불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다. 이들에게도 따뜻한 녹차 한 잔 건네며 우리 차문화를 알리는 인심 넉넉한 곳이다.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전통 차문화는 물론 중국 차문화와 다례 등의 강좌에 참가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02)732-2068

글=이수영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 보성실업고등학교

### 차산업 경영 특성화고 지정

보성실업고등학교가 국내 최초로 차 분야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로 지정됐다. 전남남도교육청은 8월 25일 전남 보성군 보성실업고등학교를 차 분야 특성화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보성실업고등학교는 내년 신입생 모집 때부터 '차산업경영과' 지원을 받는다. 녹차의 생산·가공·관광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차산업경영과는 1학년 24명(남녀공학)으로 구성된다.

보성실업고등학교는 "지역특화산업인 녹차와 연계해 녹차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더불어 차 재배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제다·유통기술 등 다양한 산학연계교육을 통해 기능인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품질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졸업 후 지역녹차산업 전문 인력으로 일하거나 차산업 관련 대학 및 학과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06)853-1906

### 고급 녹차 지향 '루' 나와

대기업들의 녹차 시장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LG생활건강이 프리미엄 녹차 브랜드 '루(LU)'를 출시하며 녹차 사업에 진출했다.

새로운 녹차 브랜드 루는 중국 절강성 유기농 녹차 생산업체로부터 차를 공급받아 국내 OEM(주문자상표부착) 공장에서 생산되며, 잎차와 티백, 분말의 세 가지 형태가 판매된다. LG생활건강은 "국내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한미녹차 등 티백 위주의 저가 녹차와는 달리 차별화된 고급 녹차를 통한 프리미엄 브랜드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진년오롱·철관음·오롱차  
 대홍포·화차·인삼오롱·외 40여가지의 차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 7. 신비의 음료

### ⑥ 여성의 음료

유럽에 커피가 유입되어 런던, 파리, 비엔나 등에서 커피가 대중화된 지 십여 년이 지난 뒤에도 독일인들에게 커피는 그리 매력적인 음료가 되지 못했다. 이것은 독일인의 대표적인 음료인 맥주가 한 요인이었다. 이들은 맥주를 알코올음료로 음용하기도 했고, 식사대용인 수프로 먹기도 했다. 혹은 설탕과 우유를 섞어 마시는 등 맥주는 기초식품이라고 기보다 가정생활의 필수품이었다.

한때 북유럽에는 배가 나오거나 똥똥한 사람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 저명인사거나 부의 상징으로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마른 사람

이러한 영향으로 커피의 음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해져 커피하우스가 번창하게 된다. 커피 하우스에서는 소규모의 음악회가 자주 열렸고, 젊은 여성들이 커피를 좋아해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신 탓으로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이런 세태를 풍자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커피칸타타'는 아버지 울트 웨이즈와 딸 리스겐의 커피음용에 대한 분쟁을 다룬 곡이다.

19세기 이후 베를린의 중산층 여성들은 남편과 아이들이 직장과 학교에 간 뒤, 카페에 모여 커피를 마셨다. 하루에 열한 이상씩 마신 것으로 보면 커피는 연한 설탕물과 같은 음료로 대화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여성들에게 커피 타임은 가사로 부터의 자유와 즐거움을 주는 시간

## 검소한 생활 풍습의 독일은 커피보다 맥주 선호

### 카페·제과점 등 활성화되며 여성 음료로 인기

은 허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사회 풍조가 있었다. 그들에게 맥주는 오랫동안 갈증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닌 포만감을 주는



카페클라치와 카페슈베스타리는 유행어를 만든 여성성향 커피하우스

이었다.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는 주로 유명한 사람에 대한 소문이나 험담으로 소문의 운상이 되기도 했다.

살 속의 제약이었다. 오를레앙 공작부인은 파리에 거주하면서 도 커피나 차, 초콜릿을 먹지 않고 맥주 수프를 즐겨 먹는 등 독일인들의 생활 풍습을 고수하여 선조들이 마시고 즐겨 왔던 것을 소중히 지키려 했다. 철학자이며 애국자인 피히테는 사회전반에 걸쳐 절제의 분위기를 조성해, 사치품이었던 커피의 소비를 억제하는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렇게 민족주의와 검소한 생활이 일반화된 독일에서는 커피가 정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었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18세기 커피가 왕궁과 공작의 저택을 중심으로 상류층인 부르주아 계급과 젊은 여성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한편으로 외부 세계와 교류가 활발했던 라이프치히의 국제교역 장소로 상업과 인쇄술이 발달하였으며 많은 교역품이 모이는 상업의 중심지였다. 매년 국제 박람회를 개최해 외국 상인들이 수시로 내왕했다.

이 당시 유행어인 카페클라치(Kaffeeklatsch)란 가십(gossip)이나 스캔들을 의미하며,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카페슈베스타(Kaffeeschwätzer)라 했다. 이렇게 카페는 새로운 유행을 만들고 소문을 만드는 사적인 장소로 자리잡았고 주 고객은 여성들이었다. 이로 인해 커피는 여성의 음료이며 커피를 만드는 일조차도 주로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어, 남자들에게는 인기가 없었다. 남성들에게 일과 후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단연 맥주였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여성들이 제과점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커피를 즐기게 만들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콘디토리아(Konditorei)라는 제과점은 중산층 여성들이 자유롭게 케이크, 토르테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새로운 풍조를 만들어 냈다. 한편 근교에는 소박한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커피 가든'이 생겼다. 이곳은 여행할 때 전원적인 풍경 속에서 소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소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머리에 똑똑!!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중·고·대학생·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卷 9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 / 02)2004-8219

- ◆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 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 ◆ 충청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 ◆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속 한맹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 ◆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 ◆ 이원중 진중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 ◆ 김중호 전 내부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